

2016년 3월 21일 월요일 새벽 요약 말씀(편집본)

네, 할렐루야~

모두는 어떻게 증거 하느냐 하면 자기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 되었나 그것을 가지고 전하도록, 오늘 새벽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기가 한 일이니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도 말을 잘하고, 전도하러 가도 말 잘하고, 설교 때도 말 잘하고. 조목조목 똑똑하게 말 잘하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책도 쓰고, 지혜가 있어야 책을 잘 엮어 나갑니다. 시문학이나 책을 쓰는데 있어서는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 묶어 나가는 것.

먼저 쓸 것은 먼저 쓰고, 앞에 쓸 것은 앞에 쓰고.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사람도 믿고, 말을 잘못하면 믿을 사람도 안 믿게 되는 것.

금주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너희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되었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라. 누가 어떻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거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구름이 무엇 인고 하니,

예수님 자신이 구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신약 성경에서 구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구름은 사람이니까 사람을 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대로 옛날에 해가 동쪽에서 뜨듯이 지금도 동쪽에서 뜬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또 옛날 예수님께 역사하듯이 이 시대 메시아가 나타나면 또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땅에서 나타나서 시대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 말씀을 풀어주며 나타나듯이 신약 말씀 풀어서 나타나서 주인공이 되어서 역사하신다.

<답>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답 갖고 와서, 구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답을 받고 그들을 따라 나오게 한다. 이와 같이 시대의 답을 준 자가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가 구원하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조리 있게 하면서 증거 하라는 것입니다.

증거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해야 잘 증거가 되냐고 말씀 가운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들이 증거를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는 역사를 증거 해야 된다.” <역사>를 증거 해야 사람들이 꿈쩍도 못하는 것.

역사를 말하라. 역사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시간을 확대시킨 것이라 했습니다. 역사는 시간을 얘기한 것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시계를 갖고 이야기하듯이 성경의 시간을 딱 갖다 주면서 “지금은 이 때이니 역사가 오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어찌하여 때를 모르느냐? 왜 때를 모르느냐? 시대를 구분할 줄 모르느냐?”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가 시대 구분을 못 합니다. 시계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의 시계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차고 다니는 시계는 있어도, 그러니까 메시아 올 때는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안 오고 끝난 것이냐? 안 오고 끝날 리가 있나? 도적같이 왔기 때문에 메시아 만나서 말씀 듣고 따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역사는 시계다!

선생님은 그냥 그럭저럭하지 않고, 청중을 한번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가서 재어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하다보면 대충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대충하면 안 됩니다. 어디가도 ‘대충 인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가 하나님의 완벽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증거를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니까 “저 사막 땅에 지구상 개미가 오줌 싸는 그 많은 것도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만물과 인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의 1천 배, 1만 배 세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풀어야 신비하고 오묘하고 감탄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이 지구상에 있는 10억이고, 100억이고 간에 다 본다는 것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 갖고는 그만큼 밖에 못 보지만, 영이 될 때는 또 엄청난 상황을 봅니다. 영이 되었을 때는 지구촌 바깥에 누구 하나만 나가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영을 가지고 말씀을 풀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해야지, 누가 이런다고 이렇게 하고 누가 저런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중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했으면 그대로 진행해 가도록 하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사적으로 증거 하라. 이치로 증거 하라.” 하셨습니다. 이미 역사가 있는데 무엇을 증거 못하고 매일 저 붓 저 붓 거립니까?

이미 역사는 지나갔습니다. 이미 역사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 안 갖고 살다보니까 몰랐지요. 하나만 알면, 하나만 잠 깨면 모든 사람 잠을 잘 깨웁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로 증거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온다. 오늘 선생이 증거 하듯이 이치로 증거 하라! 말씀에 근거를 놓고 증거 하라!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전도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한 것을 가지고 증거 할 때, 하나

님이 자기에게 역사 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밥만 먹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밥만 먹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상적으로 할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지만. 살 때도 힘들고 어렵지만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 변하지 말고, 일편단심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뛰어 나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빠이빠이~ 기도해 줄까요? 그러면 기도도 해 주겠습니다.

너희들까지 기도해 줄게. 앞으로 3백년, 5백년 후에 태어나서 이 말씀 듣는 사람들까지.

<기 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당세뿐만 아니라 후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잘 되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모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고, 나와 같이 이들도 일할 것이니 열심히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 이 시대에 모두 말씀을 증거하며, 어느 시대든지 나를 증거하고 가르쳐야 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하나님을 잘 가르친 것을 듣고 따르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연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케 해 주시고, 육신도 건강 영혼도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두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이들에게 함께하며, 악인들이 짓밟힘을 받고 의인들이 항상 꽃을 피우고 튼튼하고 천년이나 묵은 바위 위에 난 소나무처럼 싱싱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모두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